

◆ The List of Selected Books in 1972.

## 1972년도분 선정도서목록

<제 4 회>

### 도협전문위 선정분위제공

#### 일반·대학도서

##### 031 한국어 백과사전

###### 송인출판사 편집부

家庭寶鑑全書／增補最新版——家庭百科事典——318p 19cm 400원  
父子와 夫婦의 의례법첩, 系寸法과 相對稱號, 사교에 절 혼례, 回甲禮, 壓, 祭禮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言하고 祝吊辭와 書簡의 用語 등 日常生活의 指針내용을 다루고 있다. 万姓始祖編을 두고 姓氏의 由來와 源流를 言하고 一般 法律常識을 부록으로 두고 있다.

K 031 D 03A

###### 鄉民社編輯部 편

國民寶鑑／最新增補 一生活全書—鄉民社 1月 423p 19cm 1200원  
書簡作文成, 冠婚祭禮, 民願書類, 法律常識, 農漁村常識, 婚娠의 지식, 단병가정치료법, 가정요리법, 百方秘訣 등 가정과 社會生活을 하는데 진요한 제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부록: 전국우편번호.

K 031 D 03A

##### 059 년 갑

東亞年鑑 1972年版 東亞日報社 2月 1007p 사진 도 26cm 3500원  
1971년 1. 1~12. 31까지를 收錄期間으로 정하고 그期間中에 일어난 各種 重要사항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收錄範圍는 世界·韓國·地方·教育·文化·體育·人名錄·名簿·法令·條約·資料便覽·統計 등의 7部分으로 나누어 풍부하고 정확한 資料에 의거 平易한 記述로서 情報를 제공해 주고 있다.

特集: 民俗에서 부터 衣食住는 물론 天文·氣象에 이르기까지 生活全般에 걸쳐 각 分野別로 变천과 現況을 다룬 韓國歲時記를 다루고 있다.

卷初에는 「尼克·毛澤東會談」 등의 書報가 실려 있고 月別에 따른 世界와 韓國의 年間日誌가 日字順으로 기술되어 있다.

合同年鑑 1972 合同通信社 1月 2책 도 26cm 3500원

한국과 세계적으로 구분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스포츠사항 등을 다루었고 세계 각국의 현대정세와 병령집요람·통계 등도 겸하고 있다. 특집으로는 경제계획 10년의 결산과 中共의 对外關係 22年·전국이례의 발자취를 말하고 있다. 別冊부록一人名·名簿 K 059.11 D 315A

##### 070 신문, 잡지

서울經濟新聞縮刷版／1971年 11月號 서 울經濟新聞社 2月 31cm 240p 750원

1971年 11月 1日부터 30일까지의 신문기사내용을 축소판으로 엮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卷初에는 중요한記事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目誌가 수록되어 있다. K 070.911 D 070.95A

##### 108 전집, 총서, 강좌

###### 安秉煜

安秉煜에세이 選集 三省出版社 2月 10책 21cm 각권 200원

인생의 삶의 세로운秩序와創造性眞理·誠實 등을追求하려는 實存的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서서 著者는 韓國의 現代知性人們에게 그의 歐美여행과 생활주변에서 얻은精神的 指標를 제시하고 있다. K 108 D 108

###### 1.

###### 아름다운創造 372p

人生이란 무엇? 即 그것은創造의自己表現이다. 誠實과 良心으로 삶을 이어온 筆者の 꾸밈없는 生에 대한 貞撃한 수필이 담겨 있다.

내용: 「隨想에 對話」「勇氣와 挑戰」「美와 幸福의 말」「懷疑와 信仰의 雷」「知性과創造의 罗고의」의 章。

###### 2.

###### 眞理의 샘터에서 360p

人間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 物質과 享樂만이 人生의 全部가 아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生을 보다 값지게

살기 위하여 人間은 진리를 願하고 그를渴求한다.

내용: 「思索의 窓가에서」「知慧의 샘터에서」「知性의 燈臺에서」의 章。

###### 3.

###### 知性과 사랑의 香氣 357p

우리는 難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 誠實의 言語와 사랑의 노래. 創造로 生의 秩序와 올바른 方向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내용: 「세生活의 發見의 章」「思索하는 世代」「來日을 向한 비전」의 章. 원서명: 「A 교수에세이 21장」

###### 4.

###### 人生은 藝術처럼 360p

新聞社나 雜誌社의 報道에 의해 著者가 그때 접觸한 隨想集으로서, 人生을 藝術처럼 아름답게 살고, 誠實하게創造하고 싶은 소망에서 人生의 隨想, 生活의 倫理 思索의 韻宴을 소담스럽게 담고 있다. 내용: 「隨想의 샘터」「倫理의 大道」「思索의 언덕」「人格의 章」 등.

###### 5.

###### 思索자의 韵宴 352p

誠實한 人間省察의 한 도큐먼트. 人間의 精神的姿勢를 實存的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탐구한 哲學者들의 人間像의 著者의 섬세한 筆致에 의해 소중히 다루어져 있다.

내용: 「나의 暫想錄」「哲學者들의 人間像」「自由人의 思索」의 章.

###### 6.

###### 마음의 窓門을 열고. 388p

歐美各國을 여행함으로서 비로소 體驗할 수 있는 鮮明한 母國의 再發見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精神的 자세를 부각시켜주는 紀行錄이다.

내용: 「歷史의 아이러니」「原始에의 鄉愁」「神과 自由와 愛」「榮光의 過去」「精神의 王國」「빛나는 國民性」「美의 韵宴」「山光水色」「偉大한 遺產」의 章.

###### 7.

###### 幸福의 美學 368p

“내 인생은 내가 조작한다” 即 사람은 저마다 제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톨스토이 말대로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獨立된 삶을 살아가는 人生의 藝術家인 등









광로제선법, 특수 제철법, 平爐製鋼法, 電氣爐製鋼法, 광과의 제조, 순철과 연철의 제조, 제철 제강의 기초, 철광석의 환원기구, 용선—가스반응과 틸탄반응 용철과 용재간의 반응.  
권말에 부록과 찾아보기(색인)이 수록되어 있다.

K 559. 73 D 669. 14

## 671 음악이론 및 기법

柳德熙

伴奏法／教育大學音樂課程의 準한 學文社 3月 109p 26cm 880원  
주로 합주지도에 관한 ①합주를 학급의 음악학습과 어떻게 연관시키느냐의 문제 ②악기의 평성과 지도 ③합주의 지도 운영 ④과의 활동으로서의 합주 ⑤평곡과 합주곡으로서의 자료 ⑥지도교사로서 구비해야 될 최소한의 소양과 자질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K 671. 66 D 781. 66

## 673 성악

李康廉

합창 50곡집／간추린 —50CHORUS—  
國民音樂研究會 1月 191p 26cm 680원  
2부 내지 3부로 화성을 다루는 악보로서 예술가곡면 9곡, 애창곡면 16곡, 민요곡 9곡, 성곡면 6곡 등을 합하여 50곡을 간추려 수록하였다.

K 673. 2 D 784. 1

## 675 기악합주

교육대학 음악교재 연구회

기악실습교본—반주법·기악합주—學文社 3月 133p 26cm 1480원  
기악을 통한 연주에 있어서 기성된 곡의 연주 연습과 창의적인 표현반주를 창작하도록 다루고 있다. 기초 활동 Part에서는 여러 예비지식과 기초능력 등 반주곡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다루고 실습 교재와 부록에는 기초적 단계와 반주곡 이해, 습득, 응용, 발전시킬 수 있도록 소재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K 675. 11 D 785. 028

## 710 한국어

金慶漢

當面한 國語問題論考—主體性에 立脚한 生活語를 中心으로—한영문고 1月 125p 21cm 500원  
漢字폐지, 外來語表記上문제, 文法統一問題, 맞춤법 再整理作業問題 등에 관하여 국어교육상 또는 일반 언어생활에서 是正되어야 할 矛盾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姿勢나 方法이 무엇인가를 學理的面貌보다는 生活語의 實質의 面을 통하여 논술하고 있다.

K 710. [13] D 4A0. [13]

## 711 음운 및 문자

다.

K 816. 6

D8A6. [6]

## 867 풍자

Balzac

風流諧譏譚 訂本著, 金昌錫 譯, 正音社 1月 449p 19cm 1200원 (新譯世界文學全集 36)

복카뇨의 「페카메론」과 프랑스의 「백 가지 악 살맛은 이야기」를 본따 19세기 프랑스 社會風俗史의 全貌를 「人間喜劇」에서 전부描寫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발작크의 最大의 걸작작품이라 하겠다.

K 867 D 847

## 909 세계 시대사

文化史教材研究會

世界文化史 學文社 3月 305p 21cm 980원

古代社會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歷史의 形成과 조류를 개괄적,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年代와 人物·事件 등에 중점을 두고 다루었다.

K 909 D 901. 9

## 911 한국

丹齋申采浩全集編纂委員會 著

丹齋申采浩全集 上下卷 2月 2책 21cm 각권 3000원

本書는 1931年 當時의 朝鮮日報 紙上에 連載된 것으로 이번에 漏落된 部分을 补充하여 刊行된 것이다.

K 911. 03 D 95A. [03]

## 1.

朝鮮央研究 505p

내용: 總論, 午午時代, 3朝鮮分立時代, 列國爭雄時代, 高句麗全盛時代, 고구려의 中衰과 北扶餘의 滅亡, 高百魯國의 衛突, 三國血戰의 始, 고구려 對隋, 唐戰役, 백제의 強盛과 신라의 陰謀.

## 2.

朝鮮史 研究草 및 其他 508p.

古史上 史讀文名詞解釋法, 三國史記 中東西兩字相換考證, 三國誌 東夷列傳校正, 平壤測水考, 前後三韓考, 朝鮮歷史上一千年來第一大事件을 내용으로 朝鮮史研究를 보충했으며 그 밖에 傳記, 論說, 歷史, 雜誌, 文藝, 序文 편으로 나누어 수록, 卷末에 先生의 年譜과 謂文이 붙어 있다.

K 911. 03 D 95A. [03]

龜城郡誌 龜城郡民會 1月 315p 지도 21cm 非賣

平安北道 龜城郡의 歷史, 地理 風俗, 行政, 產業, 經濟, 教育, 文化, 人物, 名勝地 등을 수록한 것이다.

K 911. 23 D 95A. [23]



- 옮김 232p  
 7. 목장의 소네. 널리 바라작 이원수  
 옮김 225p  
 8. 걸리버여행기 스위프트 작 박홍근  
 옮김 218p  
 9. 보물섬 로버트 투이스 스티븐슨  
 작 박홍근 옮김 225p  
 10. 소공자 F.E.비어넷 작 이종환 옮  
 김 224p  
 11. 철가면 보아·고해작. 이인석 옮  
 김 232p  
 K 808 D 808.8

왕자형제와 베루아가씨 이 현옮김 201p
아라비안나이트 임인수옮김 247p
안데르센동화 장수철옮김 238p
노벨 이 현옮김 222p
스칸디나비아의 신화 김요섭 // 247p
집 없는 소녀 남육 // 220p
에디슨 남육 // 213p
K 808.8 D 808.8

## 소 설

아동문고 13~24권, 이영철 또 한밤을 길 블넷집 2월 12책 19cm 250
1971年度版의 계속으로 세계 여러나라 외의 결작동화, 수수께끼, 웃음보따리 얘기, 모험소설, 위인전기 등으로 재미 있게 엮어 내었다.
13권 세계동화집 이영철 옮김 177p
14권 영국동화집 이영철 옮김 187p
15권 독일동화집 이영철 옮김 175p
16권 프랑스동화집 이영철 옮김 174p
17권 러시아동화집 또한밤 옮김 184p
18권 아태리동화집 또한밤 옮김 179p
19권 중국동화집 또한밤 엮음 165p
20권十五소년모험 줄베르느작 또한 밤 엮음 173p(소년모험소설)
21권 로빈·훗의모험 하워드·파일작 또한밤 엮음 151p(소년모험소설)
22권 퀴티부인 또한밤 엮음 138p (위인전기)
23권 미련이나라—이영철 옮김 183p
24권 피주머니 또한밤 엮음 181

## 811 시

## 이전호

꽃잔치/제1동시집 東民文化社 2月  
 161p 21cm 600원

1971년을 기준으로 1959년 까지의 저자가 13년동안 준비해온 120편 時 가운데 “더위” “꽁늘이” “난 어린이가 좋아” “소나기” “아기가 읊 때” 등 68편 만을 추려 어린이들의 삶이 될 만한 동시와 노래를 수록하고 있다. 책 끝에 지은이가 결 어온 결과 남긴 말이 적혀있다.

K 811 D 8A1

소년소녀명작동화 선집, 1~15권, 삼성  
 출판사, 1月 15冊 그림 21cm 각권 10  
 00원.

불란서, 독일등 구라파 여러나라에서  
 전해되어온 神話와 전기傳說을 모아 토  
 막 토막 문장도 간결하게 독창력·상상  
 력을 풍부하게 엮어 많은 古典的 이야기  
 기를 수록하였다.

내용:

지난 해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어느 군립 도서관을 찾은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서 비교적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누구의 이야기가 있어서다. 들은대로 이 군립도서관은 군 소재지에 위치한 지역사회 사회교육센터로서 주민들의 요구와 그 지역사회의 고유성을 잘 살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곳 K 사서의 안내 설명에 의하면 이 고장이 옛 고려자기의 도요지로서 훌륭한 유산을 남기고 있어서, 주민들의 자랑이 대단하다는 서론에서부터 —

농촌 지도소, 각 마을문고와 군립도서  
 관의 협동 봉사로서 독서운동을 전개하  
 고 있으며, 그 성과가 크다고 한다. 그

에로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장노년층에는 상당수의 문맹자가 있었으나 현재 군내 몇 마을은 국민학교 일학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까지도 공문서 및 납세 고지서를 척척 읽어 갈 수 있도록 되어, 문맹자가 전무하다고 한다. 그리고 농촌 지도원이 개량증을 들고 농민들을 찾아 나설 때 사서는 농촌 문고를 걸 머저고 동행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 토록 몇십리를 걸어서 방문 대출을 하고 돌아 올 때는 초가을 서리 맞은 배추잎처럼 쭉 늘어지고, 뒷굽치 가 몇 미리씩 보기 쉽게 많아 해진다고 한다. 그런

데 2주일 후에 대출 도서를 받으려 가서는 더욱 녹초가 된다고 한다. 원래 대출 받은 순회네 집에 있어야 할 책이 옆집 철이네가 빌려 읽고, 그 다음은 이웃 둘이네가 빌려가고 그 다음 다음은 전녀 마을 섭이네 집에서 빌려가, 결국은 몇 집을 찾아가야 책을 반납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서(?) 하는 고생이라도 「내일 더 좋은 책 빌려 주세요.」라는 말이 컷션을 때릴 때는 책 짐을 걸어 메었을 지언정 흐뭇한 마음에 피곤이 사르르 가신다고 한다. K

사서의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면, 「비록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 못 받고 있지만 주민들의 존경이 두텁고, 많아

빠진 구두 뒷굽치를 자주 갈아 불일 수

는 없어도 다리가 튼튼해 져서 좋지 않느냐」라는 말에 범속한 나로선 대꾸를 잊었다. K사서의 더한 욕심이라면, 우리나라 농촌 실정에 바람직하고 보다 효과적인 순회문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문고의 지원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지금 한창 정부의 지원 아래 새마을 운동이 슬기롭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안다. 슬기로운 새마을 운동은 K사서의 욕심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YY)

